

새벽을 알리는 부귀공명의 상징 - 을유년(乙酉年) 닭띠 이야기 -

강 욱
자유기고가

새해는 을유년(乙酉年) 닭의 해이다. 12간지(干支)의 하나인 닭은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고, 오행(五行)으로 따지면 금(金)이며, 방향은 서쪽에 해당된다. 한편 유키(酉時)는 오후 5시~7시에 해당되며, 이 시간은 닭이 둥지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한국인 각자마다의 심성에 투영된 동물 이미지, 그것이 띠이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띠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만큼 띠는 아직도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전통관념 중의 하나이다.

닭의 상징적 의미는 계성(鷄聲)에서 잘 드러난다. 적막한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닭의 울음소리는 자연의 순환을 알려 주는 회전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다가옴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계성은 인간에게 온갖 희비를 엇갈리게 하면서 우리의 민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닭은 이미 신라의 시조설화와 관련되어 등장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알지의 탄생담에 의하면 “신라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 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공을 보내어 알아보니 금빛의 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 궤를 가져와 열어보니 안에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경주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뒤 그 숲 속의 이름을 계림(鷄林)이라고 하였으며 신라의 국호로 쓰이기도 하였다.

닭은 예부터 가축으로 사육되면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닭이 사육된 것은 삼국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생의 멧닭이 울안에서 사육되면서 가축화 된 것이다. 닭은 가축 중에서 잡식성으로 아무 것이나 잘 먹고 각종 질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농아기

르기가 좋고 잘 자란다. 특히 각종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에도 한 몫을 한다.

또한 닭은 다산성으로 번식이 용이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많은 달걀을 제공한다. 그리고 닭고기는 풍부한 영양가를 지니기 때문에 식용으로서의 효용성이 매우 높다. 인삼을 첨가해서 만든 삼계탕은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인기를 끈다.

한편 닭은 벋을 곤두세우고 꼭꼭거리면서 상대에게 용감하게 달려드는 모습에서 강인함을 볼 수 있다. 싸움닭의 모습에서 닭의 날렵함과 용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닭은 가축 중에서 가장 왜소하며, 개와 더불어 인간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적 인식도 생기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둔 사람은 서재에 닭의 그림을 걸었다. 닭은 입신출세(立身出世)와 부귀공명(富貴功名)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즉, 닭이 머리 위에 벋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관(冠)을 썼다고 하였다. 관을 쓴다는 것은 학문적 정상의 표지이며, 벼슬을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새해를 맞이한 각 가정에서는 닭이나 호랑이, 용을 그린 세화(歲畵)를 벽에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그 이유는 세화의 동물이 악귀를 쫓아내는 영묘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새벽을 알리는 동물인 닭의 울음소리는 귀신을 쫓는 벽사의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 산에서 내려왔던 맹수들이 닭의 울음

소리를 듣고 되돌아가고 잡귀들도 모습을 감춘다고 믿어 왔다. 그런가 하면 닭이 제 때에 울지 않으면 불길의 징조로 여겨진다. 닭이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하고 밤중에 울면 불길하다고 하며 수탉이 해진 뒤에 울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다.

또한 닭에 대한 금기사항도 많다. 호남지역에서는 며느리가 닭의 머리를 먹으면 시어머니 눈 밖에 난다고 하며, 경기도 지방에서는 여자가 닭의 목이나 발을 먹으면 그릇을 깬다고 한다. 그래서 민간에 전해지는 풍속으로 임신 중인 여자는 대체로 닭을 먹지 않는다. 닭고기를 먹으면 태어나는 아기의 피부가 닭살처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닭은 가벼운 몸집에 움직임이 많다는 점에서 경망스러운 존재로 형상화된다. 또한 '싸움닭'인 투계(鬪鷄)로서의 성격 때문에 아집이 강한 거친 동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개와 마찬가지로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닭은 특히 외형적 왜소함으로 인해 봉황, 소, 꿩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농가에서는 꿩을 하늘과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여 농기의 꼭대기에 깃털을 매달았으며, 꿩을 넣은 음식을 귀하게 여겼고 상대적으로 닭은 비하되었다.

닭띠인 사람은 성격상 자기 확신이 강하고 적극적이지만,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점이 있다. 따라서 닭띠는 지혜롭고 직관적인 뱀띠와 잘 어울리며 소띠나 용띠와도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닭띠는 다른 닭띠와 만날 때는 충돌이 일어나며,

또한 친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쥐띠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이 노출된다.

닭에 관한 속담도 매우 많다. 여자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또한 남을 해치려고 한 일이 결국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때 ‘소경 제 닭 잡아먹기’라는 말을 쓴다.

닭과 소는 적은 것과 큰 것으로 대비되기도 한다. 즉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는 속담은 크고 훌륭한 자의 휘하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것 없는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또한 하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희망이 없을 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한다. 그밖에도 산닭, 촌닭 등 닭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다 잡아 가르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산닭 길들이기’란 말이 있다. 또 세련되지 못한 사람

이 변화한 곳에서 어리둥절 하는 모습을 보고 ‘촌닭 관청에 온 것’ 같다고 한다.

닭과 관련된 길조어도 매우 많다. 닭의 목을 먹으면 목청이 좋아진다고 하며, 닭이 감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다고 한다. 또한 닭이 쌍알을 낳으면 집안이 흥한다고 하고, 닭이 항상 나무 밑에 있으면 그 집안에서 벼슬할 사람이 나온다고 전한다.

우리의 전통 혼례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집의 초례상(醮禮床) 위에 산닭(또는 잡은 닭)을 두 마리 묶어서 올린다. 여기에서 닭은 광명을 가져다 주는 다산성(多産性)의 존재로서, 제 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신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을유년 새아침이 밝았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았음을 의미한다. 닭의 해를 맞아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서 밝은 내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해 본다. 🐔